방일영문화재단

제 42 호
2018.12.31
www.bangfound.org

The Bang Il-young Foundation Newsletter

지난해의 아쉬움과 새해 꿈을 함께 나눈 귀한 자리

방일영장학생들이 송년회에 참석하러 코리아나호텔 7층에 모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 12월 21일 저녁, 바쁜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 행사에 60여 명의 방일영장학회 식구들이 참석하였다. 일부 회원이 수험생활, 교환 학생, 군 복무와 같은 사정으로 월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함께 마무리하기 위하여 모두들 즐거운 발걸음을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All is well that ends well)〉라는 제목의 비극도 있지 않던가? 이를 미루어 보아 방일영장학회는 2018년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평해도 될 것 같다. 이번 송년회는 코리아나호텔의 7층에서 뷔페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체 사진 촬영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회원들끼리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이내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 회원들은 긴장을 풀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2면에 계속>

서중회 신년회 1월 16일(수) 개최

2019년도 서중회 신년회 겸 정기총회가 1월 16일(수)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회장단은 멘토 반별 간사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발행인 **조연흥** 편집인 **유광선** 기획·편집 **리윤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재단법인 방일영문화재단**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Tel **724-5041~2** Fax **724-5049** e-mail **biyf@chosun.com**

‘통일과 나눔’ 펀드에 3억5천만 원 기부

재단은 지난 12월 26일 ‘통일과 나눔’ 재단 펀드에 3억5천만 원을 기부했다.

2015년에 3억 원, 2016년에 1억 원, 2017년에 2억 원을 기부한 데 이은 추가 기부이다.

이 기부금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차세대 리더를 발굴, 양성하는 장학 및 교육 사업에 쓰일 목적으로 지정 기탁된 것이다.

통일과나눔재단 사무국은 “그동안 방일영문화재단에서 받은 기부금을 집행하지 못해 왔으나 내년 초부터 ‘우초 글로벌 통일 인턴 장학생’ 프로그램(관련기사 3면)을 시작한다”며 또한 “외국 정부기관과 함께 탈북 학생을 위한 유학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단 유광선 사무국장이 윤석홍 통일과나눔 상임이사에게 기부금 기탁서를 전달하고 있다.

서먹함 사라지고 게임으로 금세 가까워진 송년회

<1면에서 계속> 같은 테이블에 앉은 회원들끼리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빠르게 친해졌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신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44기 김동현 간사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송년회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회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를 나눠 세 가지 종류의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시작 전 게임 결과에 따라 사무국장님이 준비하신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에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첫 번째는 OX퀴즈로 학업과 관련되지 않은 유쾌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북극곰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기린은 서서 잔다’와 같이 직관과 어긋나는 정답에서 회원들의 답이 많이 갈리었고 폭소를 이끌어내었다. 이후 진행된 그림·사진 맞히기 게임과 노래 도입부를 듣고 노래 제목 맞히기 게임에서는 난도 높은 K팝과 클래식 등 어려운 문제들을 회원들이 정답을 쉽게 맞혀 순식간에 종료되었는데, 회원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처럼 조 단위의 게임을 진행하자 회원들의 관계는 더욱더 화기애애해졌다.

신임 간사 무투표 당선

이어서 2019년 간사 선출이 이루어졌는데,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이니 만큼 선뜻 자원하는 회원이 없었다. 이후 이어진 후보 추천 과정에서 추천된 45기 유재호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회원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2018년 모든 장학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유재호 군의 성실함이 모든 회원에게 인정받은 결과물이었다. 지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간사 선거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노

통일과나눔재단 '우초(愚礎) 글로벌 인턴 장학생' 프로그램 시작

-우리 재단이 지원한 기금으로 시행하는 첫 사업-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글로벌 통일 인재양성을 위한 '우초 글로벌 인턴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우리 재단이 기금을 지원하고 통일과나눔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인턴장학생에게는 통일 관련 실무 연수 및 개별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우초 글로벌 인턴장학생' 프로그램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번 '우초 글로벌 인턴장학생' 모집에는 총 21개국 4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해 한국, 노르웨이, 레바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7명의 인턴 장학생이 최종 선발되었다. '우초 글로벌 인턴장학생'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과정별로 2~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장학생들.

라는 유재호 군의 다짐과 함께 힘찬 박수로 마무리되었다.

졸업 앞둔 회원들, "장학회 행사 적극 참여하지 못해 큰 아쉬움"

마지막으로는 올해 졸업하는 회원들과 나머지 회원들의 2018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들었다. 이번 송년회에는 총 6명의 졸업 예정자가 참석하였는데, 진로가 정해져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2018년 간사를 맡았던 44기 김동현(고려대 경영학부 3학년) 선배와 43기 김일리(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43기 신지수(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 등 3명의 선배는 학부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타 회원의 귀감이 되었다. 모든 선배가 한결같이 평소에 장학회 행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후배들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장학회에서 많은 추억을 쌓아가길 당부했다. 재학 중인 회원들은 1분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45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입대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휴학이나 교환 학생이 예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였다.

회원들은 2018년 마지막 보조장학금을 받으며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언급되었던 성과급(?)의 경우 모두에게 동일하게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고 예상치 못한 수입에 모두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2018년이 이제 마무리되어간다. 누군가에게는 방황과 좌절의 시기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취와 환희의 시기였을 수도 있다. 지나버린 1년에 후회와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나아가야할 시점이다. 다가올 2019년엔 더욱 기쁨이 함께하길 희망한다.

박지상<서울대 경영학과 2년 · 장학회 45기>

2018 하반기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 14명 선정

재단은 10월 12일 2018년도 하반기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 14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1년 이내에 책을 내는 조건으로 각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언론인은 아래와 같다. (이름 가나다순)

김동선
(전 한국일보 기자)

김병재
(전 문화일보 차장)

남정미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송은화
(BBS 사회부 기자)

유석재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윤춘호
(SBS 논설실장)

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 부국장)

임현찬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특임교수)

조재우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준형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보윤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제46기 방일영장학생 15명 선발

재단은 지난 11월 12일 제46기 방일영장학생 15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지난 1974년 처음으로 선발한 방일영장학생은 모두 714명(대학원생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새로 선발한 장학생들은 아래와 같다.(이름 가나다순)

강민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예찬
(서울대 경영학과)

김세연
(서울대 인류학과)

김은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현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도경태
(연세대 경제학과)

문지선
(고려대 행정학과)

송석원
(연세대 경영학과)

송창후
(서울대 지리학과)

양예슬
(서울대 인문계열)

이정민
(서울대 경영학과)

정지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최민서
(서울대 경영학과)

한다희
(고려대 경영학과)

한상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019년 방일영장학회 간사에 유재호 군

유재호 신임 간사

12월 21일 열린 방일영장학회 송년회에서 2019년 1년 동안 장학회원들을 대표해서 수고해줄 신임 간사로 유재호(서울대 경영학과 2년) 군이 선출됐다.

유 신임 간사는 "장학생을 대표하는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장학회의 행사와 모임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25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에 송방송 교수

수상자 송방송 교수와 심사위원을 비롯해 역대 수상자와 재단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방일영국악상' 제25회 수상자로 송방송(宋芳松 · 76)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송 교수는 한국음악학의 기초를 세운 국악 이론가로 서울대 국악과를 나와 미국 웨슬레안대학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일영국악상이 음악 이론 학자에게 주어진 것은 만당 이혜구(2회), 이보형(16회)에 이어 세 번째다. 송 교수는 국악계 인사로는 드물게 선진 음악학의 정수를 배워 국내 음악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국내 음악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진 공로

국립국악원장, 문화재 전문위원, 한예종 교수를 지내며 우리 음악의 뿌리를 집대성한 산증인으로 꼽힌다. 1991년에 펴낸 저서 '조선왕조실록 음악기사 총 색인' 은 후배 연구자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었으며, 조선 세종때 궁중음악 연주를 담당했던 아악서와 전악서의 체계와 사회적 신분을 살피고 악공, 악생들의 봉록 제도 등을 고찰했다.

올해의 시상식은 11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의 선후배 동료, 제자 국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조연흥 재단 이사장이 송방송 교수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조연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 교수는 남들이 가지 않는 외롭고 힘든 국악이론에 매진해 우리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공로를 치하했다.

한명희 심사위원장은 "초지일관 학문에만 전념하여 이처럼 큰 성취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며 "그의 호학정신은 학계나 동료, 후학들에게 사표가 될 뿐만 아니라 크게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송 교수는 지금도

제26회 임방울국악제 방일영賞 정혜빈 씨

재단이 후원하는 제26회 임방울국악제(주최 조선일보사 · SBS · 광주광역시)에서 소리꾼 정상희(39) 씨가 대통령상(임방울대상)을 받았고,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최우수상(방일영상)은 정혜빈(34) 씨가 받았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임방울국악제는 명창부 · 일반부 · 학생부 총 71명에게 시상한 국내 최대 국악 경연대회다.

정혜빈 씨(왼쪽) 정상희 씨

꾸준히 학문적 성취를 이어오고, 현역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냥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전통음악의 너른 바다에서 소요유(逍遙遊)하시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외롭고 힘든 길에 매진"

수상자 답사에서 송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잘 결정한 선택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성악가의 꿈을 접고 국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고, 둘째는 캐나다의 명문 사립대 교수직을 마다하고 국립국악원장으로 부임한 결정이었으며, 셋째 선택은 힘들게 뒷바라지한 아내와의 결혼이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1부 시상식에 이은 2부 축하공연은 송 교수가 오랫동안 몸담은 한예종 후배들의 공연으로 흥을 더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인 정철호 명인(15회), 정재국 피리 명인(18회), 김영재 해금 · 거문고 명인(22회), 이재숙 가야금 명인

(24회)과 심사위원인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 안숙선 명창, 김영동 국악 작곡가, 내빈으로는 임재원 국립국악원장, 홍성덕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상만 음악평론가, 전인평 중앙대 명예교수, 김해숙 전 국립국악원장 등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재단에서는 조연홍 이사장과 이종식 · 김용원 · 김문순 · 최성환 이사가 참석했다.

힘든 여건에서도 참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선생님들 시상

-2018년 '올해의 스승상' 15명 선정-

'2018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
앞줄 왼쪽부터 구본태(충남 청라중), 김일영(부산 해원초), 박영자(전북 이리유치원), 김영미(서울 세곡초), 김선자(대구 동신초), 배준영(대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종숙(충남 아산성심학교), 임규화(충남 공주정명학교) 선생님.
뒷줄 왼쪽부터 이유진(경남 밀양전자고), 강영호(전북 함라초), 강우람(충남 도하초), 김성곤(경남 진주기계공고), 홍석희(경기 왕산초), 최경민(경북 오태초), 한상엽(경기 도농초) 선생님.

올해의 스승상

우리 재단과 조선일보사, 교육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2018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수상자들의 가족, 제자, 동료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에게 축하와 존경을 전했다.

2002년 제정된 이 상은 이날 15명의 선생님들이 수상해 지금까지 교사 214명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전국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조선일보사와 교육부 직원 2인 1조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예심과 현지 공적 확인에 이어 최종 본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 연구 실적 평정점 1.5점이 부여된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힘든 여건에서도 참스승의 길을 걷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상자로 선정된 선생님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도연 포스텍 총장을 비롯해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최숙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 송수현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교육부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조연흥 재단 이사장, 올해의 스승상 모임인 '한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제9기 탈북장학생 10명 선발

탈북장학생들이 방상훈 사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재단은 11월 28일 제9기 탈북장학생 1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고려대 · 국민대 · 동국대 · 성균관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양대 · 홍익대 각 1명과 한국외대 2명이다.

이로써 2010년부터 선발된 탈북장학생은 모두 89명으로 늘어났다.

9기 탈북장학생들은 12월 3일 재단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조연홍 재단 이사장과 유광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재단 소개와 방일영장학회 역사,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안내받았다. 이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및 간부들과의 인사를 겸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방 사장은 일일이 학생 10명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사항, 어려운 점, 포부 등을 물었다. 방 사장은 "여러분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에만 전념해 달라"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곳에 올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잘 성장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국가에 기여할 인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자리를 옮겨 방 사장이 주재하는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홍준호 발행인, 김창균 논설주간, 박종세 경영기획실장, 배성규 정치부장,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방일영 선생 15주기 추모식

재단 설립자 방일영 선생의 15주기 추모식이 지난 8월 8일 의정부시 가능동 선영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과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회장 등 유족과 친지, 조선일보 임직원, 재단의 조연홍 이사장과 이종식, 김용원 이사, 서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를 집례한 김서년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방일영 선생은 의의 길로 달려갔다"며 "우리는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앞두고 '조선일보 100주년 위원회' 출범

오는 2020년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준비하는 '조선일보 100주년 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8월 출범했다. 사무국은 창간 100주년과 관련한 각종 기획과 행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TV조선, 작년 종편 평가 1위

2017년도 정부의 방송평가에서 TV조선이 종합편성채널 부문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9일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종편 4사 중에서 TV조선이 100점 만점에 86.01점을, 이어 MBN 84.93점, 채널A 84.78점, JTBC 82.32점 순으로 공개됐다.

TV조선은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 비율이 높아졌고,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지엄, 누적 기자체험 학생 7만 명 돌파

우리 재단이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신문 · 방송 복합미디어 체험시설인 조선일보 뉴지엄의 누적 체험 학생 수가 지난 7월 기준 7만 명을 돌파했다. 2013년 3월 개관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뉴지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신문 · 방송기자 체험' 으로 학생 수준에 맞게 초등과정과 중 · 고등과정으로 나눠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재단 이사인 **서중회 1기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용원 이사 공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재단 이사인 김용원 '한강포럼' 회장은 지난 9월 1박 2일 일정으로 회원 30여명과 함께 충남 공주의 공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강포럼' 은 언론계와 학계 등 각계의 지식인들 모임이다.

故 황병기 명인 금관문화훈장 추서

방일영국악상 제10회 수상자인 고(故)황병기 가야금 명인이 지난 10월 17일 '2018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로 선정되어 정부의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이보형 선생 기증자료 전시회

방일영국악상 16회 수상자인 민속악 연구자 이보형 선생이 평생 전국을 누비며 모은 판소리, 농악, 민요, 무속 음악 등 자료 1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 10일 기증식을 갖고 '민속음악악 연구의 개척자, 이보형 기증 자료전' 을 열었다.

정철호 명인 국악 세계 전집 출판기념회

방일영국악상 제15회 수상자 정철호 명인이 지난 11월 9일 '한국의 집' 에서 국악 세계 전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전집은 정 명인이 평생을 만들어온 신민요, 판소리 · 창극, 아쟁산조 작곡을 총정리한 소중한 자료로 3권의 책과 CD음원 4장으로 구성되었다.

김덕수 명인, 첫 장구 독주 앨범 발매

방일영국악상 제23회 수상자인 장구 명인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19일 데뷔 61년 만에 첫 장구 독주 앨범 '김덕수 장구산조' 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선보이는 음반이자 첫 독주 음반이다.

김 명인은 올해로 데뷔 61주년, 사물놀이 40주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년퇴임을 한꺼번에 맞으면서 "흔적 하나 남겨야 할 것 같아 장구를 둘러멘 결정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명인은 한국의 전통장단을 집대성한 책도 집필 중이다. 국제적 음악 언어로 세계에 우리 장단의 우수성을 쉽고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2018 하반기 서중포럼 개최

서중회는 지난 11월 21일 2018년 하반기 서중포럼을 서울 퇴계로 세종호텔에서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서중회 15기인 연세대 경영학과 이무원 교수가 '기업 에코시스템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혁신 생태계 모습을 분석 비교해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좌로부터 이동혁(18기), 황영웅(22기), 김영철(24기), 정익상(17기), 김현곤(8기), 김영빈(9기), 허익범(5기), 전원열(12기), 문용호(4기), 이무원(15기), 최성환(4기), 김춘수(24기), 박순성(10기), 정태석(27기), 이수희(15기) 회원.

서중회 9기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촉

권구훈

서중회 9기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가 11월 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유라시아 등 북방지역과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부 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17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권 위원장은 ABN암로은행 런던지점 선임연구원으로 일한 뒤 IMF 모스크바 사무소 부소장을 역임하며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학회 42기 김준영 군**이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서중회원 동정

- **4기 고정한** 법무법인 법헌 미국변호사로 옮김.
- **14기 서정민**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으로 승진.
- **15기 구성민** 키움증권 상무에서 기업금융본부장으로 승진.
- **16기 김병도** 코맥스 경영기획실 전무로 승진.
- **17기 김형준** 스트라이커 PEF 경영고문으로 옮김.
- **18기 정인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로 옮김.
- **19기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장(대통령 비서실 파견)으로 승진.
- **20기 김선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옮김.
- **21기 남병노** 바름회계법인으로 옮김.
- **21기 전현주** 신용보증기금 ICT 전략부 팀장으로 승진.
- **22기 김태정**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현대중공업 준법경영실 상무로 옮김.
- **22기 이태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옮김.
- **27기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옮김.
- **31기 김윤주** 금융감독원에서 창투회사인 PRODIGY INVESTMENT로 옮김.
- **32기 정태혁**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로 옮김.

2019년 졸업 예정 장학생들 진로

- **류현석(37기)** LG 디스플레이 입사
- **예성주(39기)** 서울대 대학원 통계학과 진학
- **명경미(40기)** 한영회계법인 입사(2018 CPA 합격)
- **배재호(40기)** 안진회계법인 입사
- **임정윤(40기)** 이마트 입사
- **최동근(40기)**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과 진학
- **박선영(41기)** 서울대 대학원 중문학과 진학
- **오석주(41기)**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진학
- **이수현(41기)** 애플리케이션 업체 SNOW 입사
- **김혜주(42기)** 연세대 대학원 응용통계학과 진학
- **이채현(42기)** 한국은행 입사
- **김일리(43기)** 서울대 경영학과 조기 졸업, 서울대 로스쿨 진학
- **신지수(43기)** 서울대 경제학부 조기 졸업, 서울대 로스쿨 진학
- **김동현(44기)** 고려대 경영학과 조기 졸업, 고려대 로스쿨 진학

나를 변화시킨 파리, 그리고 디드로 대학

김동환 <서울대 미학과 4년 · 장학회 41기>

파리에 처음으로 도착한 날에는 비가 내렸고 사방이 어두웠다. 그다지 춥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짐을 옮기기 위해서 우버를 타야 했는데 통신 장애로 우버가 잡히지 않아 당황했다. 결국 공항 근처에서 손님들을 기다리며 배회하던 기사 중 한 명이 나에게 접근해 왔고, 그렇게 얼떨결에 나는 숙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요컨대 시작이 별로 맘에 썩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김동환

개강 후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어서, 원하는 만큼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수업 방식이 한국과 전적으로 달랐다. 결정적인 차이는 두 시간 단위의 수업의 구성 방식에 있었다. 한국의 대학 강의에서는 대부분 한 세션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에 대한 형식적 고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선생들은 보통 두서없이 말을 이어 가거나 중구난방으로 잡담을 늘어 놓기 일쑤다. 그렇지만 첫 주에 내가 참관했던 이곳의 수업들은 하나같이 매우 높은 밀도를 지니고 있었다. 학생으로서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공부할 수 있는 자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가장 만족스러워

한 학기 동안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공부할 수 있는 자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였다. 개인적으로 학사 졸업 이후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더 없이 반가운 경험이었다. 내가 다녀온 파리 디드로 대학(7대학)은 교환학생에게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모두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나는 석사 과정 수업과 세미나 위주로 시간표를 구성했다. 석사 수업은 학사 수업보다 훨씬 여유롭게 진행됐다. 수업 시수도 적고, 과제 부담도 없는 편이라 충분히 내 시간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또한 과제 제출이나 필기 시험 이후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되었다. 한국에서는 학기의 구조 상, 가장 중요한 글쓰기 과제가 언제나 학기말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과제의 제출과 함께 학기가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내가 제출한 글에 대한 피드백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제출 후 2~3주 간의 시간을 거친 후 교수가 따로 면담시간을 설정해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짜여 있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에 대해 교수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이것이 진정 학생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미테랑 도서관과 몽수리 공원은 이방인의 탈출구

파리는 흔히들 관광의 도시라고 불린다. 사실 파리가

거대한 도시는 아니므로 작정하면 하루 안에 주요 시내를 다 돌아다닐 수도 있다. 내가 살았던 14구에는 특별한 관광지는 없었지만 나는 미테랑 프랑스 국립 도서관을 참으로 좋아했다. 굉장히 크고, 시설도 아주 좋으며, 책도 당연히 많고, 무엇보다 내부 조명이 참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다양한 연령층과 연구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므로 젊은 사람들도 그다지 떠들지 않았다. 도서관 열람실 의자도 아주 아름다웠던 기억이 난다. 관광지로는 파리 소재 박물관이나 갤러리들을 자주 방문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는 도시라 때론 번잡스러웠지만 파리에 위치한 다양한 공원 덕에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다. 파리에는 공원들이 많고 아름다운데, 특히 몽수리 공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곳은 공원 전체가 하나의 둥그런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독특한 지형이 주는 기묘한 시야의 경험 덕에 아침마다 자주 찾아 산책을 하곤 했다.

매주 멋진 음악회도 싼 값에 감상

더불어 파리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혜택도 자랑할 만하다. 우선 공립 박물관들은 학생이라면 거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므로 부지런히 다니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너무나 다행이었던 점은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 값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학생 할인 제도가 쿼터 제로 운영되고, 심지어 그 할당량도 매우 적어서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파리 필하모니의 막판 티켓 제도는 잘만 이용하면 거의 매주 멋진 공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학기가 끝나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다녀왔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갈까 고민하다 현실적인 문제로 리스본을 선택하였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물가도 싸고, 음식도 맛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였다. 관광객이 많아도 단체 관광객이 없어 꽤나 쾌적하게 시내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하나의 도시가 수많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껏 보지 못했다. 도시의 북쪽은 평범한 주거지 느낌이었지만, 시내는 매우 조밀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또한 벨렘 지구에 가면 약간 열대지방 느낌이 들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색다른 경험들이 나를 변화시키다

파리에 도착하기 전에는 한국과 전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리라고는 가늠하지 못했다. 그것은 실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고, 진심으로 나의 적응력을 시험하는 기회였다. 진정으로 내가 스스로를 다른 환경에 적응시켜야 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전적인 다름의 경험이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변화시켰다.

디드로 대학 전경

교실 수업 광경

9월*

기자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신 분 **한현우**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번 9월 월례회 강연은 조선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계신 한현우 위원님께서 맡아주셨다. 새 학기를 여는 첫 강연임과 동시에 친숙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남는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기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셨다. 다들 쉽게 대답하지 못하자 이어 "기자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자"라는 말과 함께 강연을 이어가셨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신문', '일이 많다.', '신뢰성', '진실성' 등 많은 답변이 나왔고, 한 위원께서는 '기레기', '박봉' 등 유머러스한 답변도 추가해 주셨다. 잠깐의 토론 후 한 위원께서는 기자는 '글 쓰는 사람', 즉 Writer라고 정리하셨다.

기자는 기사를 쉽게 써야

기자를 정의하신 후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신문은 글로 쓰인 매체이고, 방송은 말과 화면으로 방영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신문기자는 혼자 사건을 취재하며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기자는 함께 사건을 취재하며 원고를 작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방송기자는 항상 사건에 대한 그림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방송기자라면 엄청난 폭염을 보도할 때 "계란도 익을 것 같은 날씨인데요, 계란을 한번 아스팔트에 깨서 익혀보겠습니다"와 같은 극적인 그림을 항상 같이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께서는 자신이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신문기자에 초점을 맞추어 강연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셨다.

신문기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글을 잘 분석해야 한다. 목욕탕에 쓰여 있는 '젖은 몸을 말릴 때는 선풍기를 이용해 주세요' 라는 주의문을 분석해 본다고 하자. 이 문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문장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즉 저널리즘적인 문장이 아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사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외국인이 이 문장을 본다면 정말 선풍기로 몸을 말리라는 것인가? 라고 오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장을 고쳐야 할까?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헤어드라이어를 적게 써달라는 말이다. 핵심 주장을 포함해서 문장을 쓰면 "헤어드라이어는 머리 말릴 때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칠 수 있다. 이처럼 기자는 글을 잘 분석하여 글을 아주 쉽게 써야 한다. 실제 신문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글로 쓰라고 말하는데, 오독되지 않게 쓰는 것이 기사를 쓸 때 아주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준다.

또한 신문기자는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묘사를 많이 할수록 잘 쓴 기사가 된다. 방송에는 그 사건의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인터뷰만 필요하지만 신문 기사는 정돈된 문장으로, 정리된 인터뷰로 그 사건을 전달해야 한다. 방송 기사와는 달리 신문 기사에 "말도 마세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꽝 하더라고요"라고 전달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묘사가 중요해진다.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신문 기사에 올라올 때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편집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신문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신문 저널리즘이란 '정확성' 과 '신속성' 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대부분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 빠르게 기사를 작성해도 정확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도 남들보다 빠르지

한현우 논설위원과 장학생들

않다면 대중에게 외면당한다. 그러므로 이 두 상반된 가치를 들여다 본다면 기사를 비평하기는 매우 쉽다고 말씀해 주셨다. 한 사건이 발생해 보도가 나온 후 나중에 그 사건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저널리즘의 두 가지 가치를 집중해서 기사를 본다면 "이 기사는 신속하게 보도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군", 혹은 "정확한 내용이지만 너무 나중에 보도되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지 못했군"과 같이 비평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어주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는 오류를 정정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음도 추가로 말씀해 주셨다.

기사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다시 기자라는 직업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쓰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새로운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글을 올리면 대중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뉴스와 같은 것들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기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SNS에서 글을 올리거나 공유해도 SNS 사용자는 이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 책임은 원제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이에 대한 도덕적인 영향이나 이 글에 대한 사회적인 무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사는 다르다. 기자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사회적 무게를 고려하고 글에 대한 질타를 견뎌내야 한다. 그러므로 기사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의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자는 공인인가? 공무원은 공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면서 세금을 통한 봉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자들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사기업에 속해 있고 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돈으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자는 공인에 준하는 직업이다. 기자라는 직업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기자라는 직업이 주는 매력이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기자는 갑인가 을인가? 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이어가셨다. 기자는 갑이기도 하면서 을이기도 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21면에 계속>

10월*

인생은 탐색, 도전이다

말씀해 주신 분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10월 월례회 강연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님께서 맡아주셨다. 손지애 교수님은 뉴욕타임tm 서울주재기자, CNN 서울지국장을 거쳐 아리랑 TV CEO직을 역임한 언론인이다. 해외 언론의 시각에서 한국 내부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연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혜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강연 주제는 인생의 혜안에 관한 것이었다. 조그만 잡지사에서 눈이 빠져라 spell check를 하던 20대 수습기자에서 아리랑 TV의 최연소, 최초 여성 CEO자리까지 오른 교수님은 대학생 청춘들에게 필요한 인생 조언을 3가지로 압축하셨다.

내일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라며 첫 번째 조언을 전하셨다. 교수님은 5~6세 무렵 머리카락을 팔면 값을 잘 쳐주겠다며 다가오시던 할머니가 어렸을 적의 첫 번째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경공업 위주로 성장하며 인모 가발을 주력으로 수출하던 시기인데 몇 년 사이에 이 시기는 경제나 역사 관련 책에서만 접해 보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교수님께서는 특히 CNN 서울지국장으로 남이섬, 해외 K팝 콘서트 등을 취재하러 다닐 때 격세지감을 가장 많이 느끼셨다고 한다. 값싼 노동력으로 생활필수품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던 한국이 첨단산업과 문화의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인생의 흐름과 함께 지켜본 교수님은 "변화는 무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더불어 교수님께서는 대학시절에 하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30~40년 만에 사라질 만큼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일을 해보라고 추천해주셨다.

모든 배움은 책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신 교수님은 그곳에서 '책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다고 하셨다. 미국, 유럽의 지성세계에서는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지성인을 구분할 만큼 책은 중요하다고 하셨다. 동화, 만화책도 좋으니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교수님은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이 인격, 윤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독서의 중요성이야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어와 모를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황금열쇠, 외국어

우리는 주변에서 '외국어 공부 좀 할 걸'이라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직장인, 어른들을 쉬이 볼 수 있다. 성인들을 타깃으로 한 영어 과외, 학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외국어는 도대체 왜 중요할까? 교수님께서는 외국어야말로 인생을

손지애 교수와 장학생들

100배는 더 확장해주는 황금 열쇠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5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까지 영어에 어려움 없이 살아왔을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교수님은 미국 생활을 마무리 짓고 한국어에 대해 백지인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는 학생이 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악착같이 영어를 쓰지 않은 결과 3년 만에 영어를 잊어버렸다고 하셨다. 본인의 경험에 기대어 외국어는 과목이 아니라 근육과 같은 신체의 일부이므로 평생 쓰고 단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교수님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태껏 시도해보지 않은 다양한 일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 20대의 대학생 시절이 선택의 기회가 가장 많고 사회의 눈초리도 덜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는 존재가 대학생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미래의 내가 가장 추억하고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기도 대학생 시절이다. 한창 흔들리고 고민하는 시기에 놓인 우리가 값진 조언으로 올바른 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받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리 **이승준**<서울대 경제학부 2년 · 장학회45기>

11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말씀해 주신 분 **정여울** <작가, 문학평론가>

정여울 작가와 장학생들

11월 월례회에서는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마음의 서재' 등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 정여울 강사님의 강연을 들었다.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20대를 되돌아보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이번 월례회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힐링' 이 되는 시간이었다.

-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정여울 작가님께서는 학생들이 두 가지 유형의 삶 중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첫 번째 유형의 삶은 닫힌 삶이다. 마음을 닫고 살아가면 기쁨이 적은 대신 상처도 적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삶은 열린 삶이다. 마음을 열고 살아가면 상처받을 일이 많은 대신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힌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조금 더 열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고 전하셨다. '리스본 행 야간열차'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중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처럼 열린 삶을 살면 우리 안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배운 시간이었다.

- 사회성과 개성,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작가님께서는 융 심리학을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융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내면에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함을 강조한다.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ego' 가 있는 반면, 자신의 개성을 누르고 사회에 동조할 것을 추구하는 'self' 도 있다. 현대사회는 남의 의견에 동조할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작가님은 오늘의 강연을 계기로 우리 안에 있는 'self' 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하라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다.

- 상처받은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강연에서 작가님이 강조하신 또 다른 개념은 '상처받은 치유자' 라는 개념이었다.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신이 느낀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픔을 겪은 이는 다른 이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한다. 우리는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공격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보듬어주는 사회를 꿈꾸게 되었다.

- 예민한 나, 이상한 걸까요?

작가님은 마지막으로 섬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 보통 섬세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불필요하게 예민하다는 낙인이 찍힌 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쉽다고 한다. 그런데 섬세함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창조성은 섬세함으로부터 발휘된다. 위대한 예술가들 중 섬세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 중 하나이다. 섬세한 사람들은 보통 내성적이기도 하다. 내성성 역시 내면의 더 좋은 나를 발견하고 가꾸어나가는 계기가 된다. 섬세하다고, 내성적이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작가님은 다시 한 번 일깨워주셨다.

이번 강연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창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정여울 작가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꿈 많은 사회 초년생으로 성장해보고자 한다.

정리 **도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년 · 장학회 45기>

<17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탈 후보자가 사기적인 행각을 했음을 눈치챘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자는 그 후보자에 대해 갑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한참을 기다리는 등 을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다.

냉철하고 분석적인 기사로 독자에게 화제를 제공하는 저널리즘

그렇다면 기자는 어떨 때 그 힘을 발휘할까? 한 위원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2009년에 쓰인 자신이 감명을 받았던 한 기사를 보여주셨다. 유명한 한 재벌 부부가 미국 원정 출산을 하러 간 사건을 격렬히 비판했던 기사였다.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해 주기를 원한다. 기자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기사 내용을 통해 대중에게 이에 대한 화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즉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 라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이 가진 힘이자 기자의 본질이다. 이런 기사 한 꼭지를 쓰기 위해 지금까지 말한 기자의 어려운 점을 이겨낸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감명을 받았다.

이번 월례회는 한 위원님의 진솔한 경험과 기자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기자라는 직업이 꼭 자신의 희망직업이 아니더라도 기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훌륭한 기사를 선별하는 것은 기자와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또한 기자를 만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이에 추가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대학 졸업축사를 인용하셔서 스펙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다. 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장학회 회원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리 **박상윤** <연세대 경영학과2년 · 장학회45기>

new books

J노믹스 vs. 아베노믹스(방현철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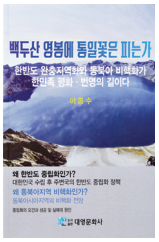
흔히 대통령의 경제학으로 불리는 '~노믹스' 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예측해보는 노작.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는 모두 케인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정확대와 소득주도 성장 등이 그렇다. 하지만 노믹스는 과학과 믿음이 결합된 용어다. '경제는 다수의 심리가 반영된 현상' 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 케인스주의가 우리 눈앞의 장기불황을 해결해줄 것인가, 우리 경제는 '일본과의 20년 시차' 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가 등을 다루었다. 이콘. 15,000원

시진핑.jpg -중국의 이미지 굴기(변영욱 글)

중국에서는 사진과 영상이 체제를 홍보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 등 권력자들은 카메라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 사진기자인 저자는 그래서 언론통제가 존재하는 중국의 이미지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그 길을 안내한다. 도서출판 단디. 1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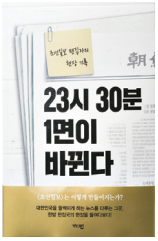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영주권부터 국가코인까지 미래를 추월한 나라(박용범 글)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북유럽 국가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 부동산을 제외한 99%의 행정 사무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전자신분증부터 스마트시티까지 모든 것이 블록체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을 소개하는 책이다. 매일경제신문사. 16,000원



백두산 영봉에 통일꽃은 피는가
-한반도 완충지역화와 동북아 비핵화가 한민족 평화 번영의 길이다(이종수 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해빙 기운이 싹트는 시기를 맞아 한반도 중립화와 동북아 지역 비핵화를 다룬 책. 저자는 많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 현대사의 고비마다 거론돼온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성공 요건으로 만주와 연해주, 일본, 한반도의 비핵화를 꼽는다. 미국 내 싱크탱크들과 미 국무부의 그간 연구들도 소개한다. 북한의 동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남남 갈등의 극복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대영문화사. 15,000원



23시30분 1면이 바뀐다(주영훈 글)

조간신문 편집 마감시간은 23시 30분이다. 하지만 큼직한 특종감이 나타나거나 주요 외신기사가 터지면 1면 편집을 다시 해야 한다. 급박한 뉴스가 뜨면 인쇄 중인 윤전기를 세우고 새 뉴스로 갈아끼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뉴스를 다루는 야간 편집국. 특히

1면 편집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조선일보 편집자의 현장 기록이다. 가디언.15,000원.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류희림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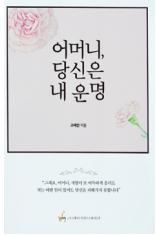
가짜 뉴스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유튜브에 합성된 동영상이 떠돌고 가짜로 여론을 조작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정보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의 실상을 알고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글로세움. 15,000원

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김병희 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변화돼 왔는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경제와 성장, 민생과 소비, 복지와 보호, 과학과 체육, 공익과 안전 등 5개 분야 26개 정부 정책을 거시적으로 접근했다. 성공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실패한 정책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했다. 관련 분야 법령 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살림. 4,500원.

산의 향기(정정현 글 · 사진)

35년간 산 전문 사진기자로 전국의 산을 누빈 저자가 25개 산에 얽힌 사람과 역사의 관계를 담백하게 풀어냈다. 아름다운 산 사진을 많이 넣어 지루할 틈이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다. 산을 통해 체득한 삶의 진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기파랑. 17,000원



어머니, 당신은 내 운명(고혜련 글)

어머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써내려 간 수상록. 조물주가 '사랑' 이라는 말을 형상화해 지상에 내려보낸 존재가 '어머니' 라고 저자는 믿는다.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글 머리에 속담이나 잠언을 올려 공감을 더해 준다. (주)제이커뮤니케이션. 16,000원

new books

new books

전북언론사(최동성 · 전오열 글)

전북지역 언론 역사를 처음으로 집대성한 역작. 언론인이자 언론학자인 저자들이 여러 해 동안 발품을 팔아 자료를 모으고 수많은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여 기록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사발통문' 에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의 지역 일본신문, 광복 후의 신문들, 그리고 현재의 열악한 지역언론 현황에 이르기까지를 담았다. 각종 자료들을 표와 그림, 사진으로 풍부하게 실었다. 한국학술정보. 24,000원

농촌재생 6차산업 (정윤성 글)

우리나라와 일본의 6차산업(농촌융복합 산업)의 사례를 찾아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4대 성공전략을 제시했다. 1차산업 기반 구축과 상품성, 연중 판매시스템, 공동체 네트워크 수익모델 창출 등이 그것이다. 농촌융복합 산업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하나의 축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싱크스마트. 15,000원.

류성룡 징비력(이권효 글)

'징비(懲毖)' 는 서애 류성룡이 임진란 후 낙향하여 쓴 '징비록' 으로 널리 알려진 말이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삼가다' 는 뜻이다. 그러나 서애에게 '징비' 는 임진란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에 흐르는 태도이고 역량이고 정서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징비록을 비롯해 '근폭집' , '군문등록' , '진사록' 등 서애의 저서와 기록들을 분석하면 그의 이 같은 사상과 정신이 온전히 드러난다. 반성과 성찰을 넘어 현실을 개선하고 희망을 가꾸는 적극적 의미라는 것이다. 징비력의 10가지 요소로 공분, 실질, 진심, 원려, 수신 등을 들었다. 나남. 24,000원

세종 이도의 철학 -생민과 변역(김광옥 글)

세종대왕의 사상과 행동 원리, 사유세계 등을 정리한 책. '이도' 는 그의 이름이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바탕으로 썼으며, 세종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경인문화사. 45,000원